

(주소) 11027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 443번길 2 (전화) 031-830-5600 (팩스) 031-830-5632

2023. 03. 18.	쪽수	사진	기관 도메인주소	자료문의
전곡선사박물관 일본 토미자와 유적보존관 MOU 체결	2쪽	있음	http://jgpm.ggcf.or.kr	부서 : 전곡선사박물관 담당 : 김소영 전화 : 031-830-5615

“구석기시대의 세계는 하나” 전곡선사박물관-일본 토미자와 유적보존관 MOU 체결

- ▶ 전곡선사박물관-일본 도호쿠 센다이시 공립 선사박물관과 국제문화교류 MOU 체결
- ▶ 전곡리 유적의 주먹도끼와 일본 토미자와 유적의 지하 숲이 만나다

경기문화재단 전곡선사박물관(관장 이한용)은 13일(수) 박물관에서 일본 토미자와 유적보존관(국장 사토 유우코)과 ‘국제문화교류협약’을 맺었다. 전곡선사박물관은 우리나라 대표 선사 전문 박물관으로 2011년 개관 이래 국내·외 유수의 고고학 전문 기관들과 교류를 맺고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해외 교류 재개의 일환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토미자와 유적보존관은 일본 도호쿠 센다이시 교육위원회에서 설립하고 공익재단법인 센다이시 시민문화사업단에서 운영 중인 공립 선사박물관이다. 박물관이 있는 토미자와 유적은 후기 구석기시대 유적으로 흔히 ‘지하의 숲’ 박물관으로 불린다. 이 유적은 1988년 구제발굴을 통해 발견되었는데 지표면에서 약 5m 아래에서 약 2만 년 전의 고인류의 생활과 더불어 구석기시대의 숲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보고 당시 세계 유래를 찾기 힘든 구석기시대 숲과 구석기인의 점유 흔적이 남아있어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1996년 박물관이 건립되었다. 현재 박물관 내부에는 지하의 숲이 원형에 가깝게 보존되어 있고 다양한 선사시대 전시와 교육,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는 일본을 대표하는 선사 유적박물관이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교류해 온 두 박물관이 체계적으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구석기

축제 협력을 시작으로 선사 콘텐츠 및 인적 교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 선사 학술 교류 및 공동 연구 추진 ▲ 전시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정보 교환 및 교류 ▲ 공동 선사 프로그램 개최 ▲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공동 구축 등이다. 코로나 19 엔데믹 이후 재개된 국제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체결된 이번 국제문화교류협약을 통해 전곡선사박물관의 해외 네트워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1. 전곡선사박물관-토미자와 유적보존관 업무협약식 사진 1
2. 전곡선사박물관-토미자와 유적보존관 업무협약식 사진 2